18일 오후 가수 김호중(33)의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가 열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입구에 팬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 = 연합뉴스]18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의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가 열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인근에는 오후 6시 공연 시작 수 시간 전부터 수천명의 팬들 발길이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팬들 대부분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이었다. 김호중 팬덤 색깔인 보라색 옷을 입고 공연장 인근에 마련된 포토존에 긴 줄을 서는 등 콘서트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일부 팬들은 취재진 인터뷰를 거부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의혹 등 김씨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비판을 의식한 듯 보였다. 심지어 김씨 팬클럽 관계자로 추정되는 한 팬은 인터뷰하려는 취재진을 제지하기까지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반면, 일반 시민들은 공연 강행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장 주변 공원에 산책 나온 장모 씨(60대)는 “공연 강행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팬들이 많아서 조금은 놀랐다”면서 “잘못이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김씨가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김씨의 공연 강행을 옹호하는 팬들도 있지만 비판하는 댓글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한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콘서트 예매를 했는데 취소하려니 수수료가 10만원 넘는다”며 “공연 자체를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적었다.인터넷 예매 기준 이날 공연 관람 가격은 VIP석이 23만원, R석이 21만원이다. 최소 20만원이 넘는 가격임에도 수천석의 좌석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예매사이트에는 공연 당일 예매 취소가 불가능하며 하루 이틀 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티켓 금액의 30％라고 안내돼 있다.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동한 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후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김씨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음주운전 의혹이 일었고, 경찰은 18일 새벽 김씨가 사고 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